

# 기아, 연식 변경 '더 2024 모닝' 출시...GT라인 추가

### 국내 경차 중 처음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오토 홀드 탑재 편의성 높이고 스포티한 느낌 강조...가격 1300만원부터

기아는 국내 대표 경차인 모닝의 상품 경쟁력을 높인 '더(The) 2024 모닝'을 10일 출시하고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더 2024 모닝은 연식 변경 모델로, GT 라인 트림을 새로 추가하고 신규 사양을 적용해 운전자 편의성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라고 기아는 소개했다.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더 2024 모닝의 GT 라인 은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해 기본 모델보다 한층 더 강인한 이미지를 완성했다.

외관은 라디에이터는 물론 인테이크 그릴을 확장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했다.

또 전면 가용 16인치 휠과 블랙 고광택 사이드실 몰딩, 디퓨저가 적용된 후면 범퍼, GT 라인 전용 엠블럼 등을 통해 차별화된 디자인을 구현했다.

여기에 헤드램프와 주간주행등, 전면부 방향지시등, 센터 포지셔닝 램프에 모두 발광다이오드(LED)를 적용했고, 실내는 D컷 스티어링 휠과 메탈 페달을 장착했다.

이와 함께 국내 내연기관 경차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와 오토 홀드를 기본 탑재했다.

또 기존 모델에서 선택 사양이던 16인치 전면 가용 휠과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를 시그니처 트림에 기본화했다.

시그니처 트림의 선택 사양인 '드라이브 와이즈 II'에 정차 및 재출발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크루즈 컨트롤을 탑재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상위 트림에만 있던 슬라이딩 센터 콘솔



기아가 10일 출시한 'The 2024 모닝' GT 라인 외관(오른쪽)과 내부 모습. <기아 제공>

암레스트와 C타입 USB 단자를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적용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지능형 주행 제어 기능 장치를 탑재해 편의성도 높이고 모든 트림에 차량용 소화기를 장착했다.

'The 2024 모닝' 판매 가격은 1.0 가솔린 ▲트렌 1325만원 ▲프레스티지 1500만원 ▲시그니처 1725만원 ▲GT 라인 1820만원이며, 1.0 가솔린 밴은 ▲트렌디 1300만원 ▲프레스티지 1370만원이다.

기아 관계자는 "더 2024 모닝은 GT 라인을 추가



하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적용하는 등 연식 변경 모델임에도 큰 변화를 줬다"며 "새로운 디자인 패키지와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갖춘 이번 모닝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모비스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수소사회 선도"

### 수소 제품 개발·혁신 속도 수소차 넘어 산업 전분야로 확산

현대차그룹이 그룹 내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술력과 자원을 한데 모아 제품 개발·혁신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는 지난 2월 현대모비스와 국내 수소연료전지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현대모비스로부터 관련 사업을 넘겨받는 3개월에 걸친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차의 연구개발(R&D), 현대모비스의 생산'이라는 수소연료전지 사업 이원화 구조는 현대차로 일원화됐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사업 관련 설비·자산뿐 아니라 R&D 및 생산품질 관련 인력 등을 흡수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 R&D본부 수소연료전지개발센터 내에 '수소연료전지 공정품질실'을 신설하고, 제조 기술과 양산 품질을 담당하는 조직을 뒀다.

현대차는 이번 조직 통합을 통해 수소연료전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품질을 높일 방침이다. 또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인프라·운영 비용을 줄여 제품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수소전기차뿐 아니라 비(非)차량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판매도 확대한다.

궁극적으로 '수소 생태계 실현'을 가속화하면서 '수소사회' 구축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국내외 다양한 기업, 연구기관,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에도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98년 수소 R&D 전담 조



HTWO 수소연료전지시스템.

직을 신설했다. 당시 환경 문제와 에너지 공급, 자원 고갈 등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수소에너지의 가능성을 눈여겨본 데 따른 것이다.

이후 현대차그룹은 2000년 미국 캘리포니아 연료전지 시범사업에 참여해 신타페 수소전기차를 처음 선보였고, 2004년에는 수소연료전지의 핵심 부품인 스택의 독자개발에 성공했다.

2013년에는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전기차'인 투싼ix 수소전기차를 만들고, 2018년에는 2세대 수소전기차 넥쏘를 내놨다.

버스 부문에서는 2017년 도심형 수소전기버스를 처음 선보인 뒤 지난해 고속형 대형버스급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처음 탑재한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를 출시했다.

2020년에는 세계 최초의 수소전기 대형트럭인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도 양산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분야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넥쏘의 후속 모델을 내년까지 출시하고, 트램과 선박, 미래항공모빌리티(AAM)를 비롯한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에도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할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공뿐 아니라 관련 소프트웨어 지원, 시스템 설치 및 점검, 각종 금융 서비스까지 수소사회 구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 출시

첨단운전자 보조시스템 강화

현대차는 대표 세단 그랜저의 연식 변경 모델 '2025 그랜저'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그랜저는 지난 1986년 첫 출시 후 '사장차'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현대차의 대표 세단으로, 지난해에는 총 11만3047대가 팔리며 국내 베스트셀링카에 이름을 올렸다.

신형 그랜저 전 트림에는 지능형 안전 사양 '차로 유지 보조(LFA) 2'가 기본으로 적용됐다.

차로 유지 보조 2는 전방 카메라 작동 영역을 확대하고, 조향 제어 방식을 보강해 기존 차로 유지 보조 기능 대비 차로 중앙 유지 성능을 향상했다.

블랙 그릴과 엠블럼 등 외장 일부를 검은색으로 바꿀 수 있는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객 선호도가 높았던 스티어링휠 그림 감지 기능을 전 트림에 탑재했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의 적용 범위를 공조 제어기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전자식 변속 칼럼 진동 경고 기능과 실내 소화가 등이 신형 그랜저에 새롭게 장착됐다.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에 신규 기능을 대거 탑재했지만, 가격 인상 폭은 20만원대로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이달 그랜저를 신규 계약하고, 오는 9월 출고한 고객을 대상으로 1년/2만km 이내 발생한 외장 손상에 대해 보강 금액 안에서 수리·교체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 SSF샵과 손잡고 캐스퍼 구매 고객 이벤트 할인 쿠폰·포인트 등 제공

현대차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전문몰 SSF샵과 캐스퍼 구매 시 총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벤트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캐스퍼 할인 쿠폰 및 SSF샵 전용 포인트, 쿠폰팩 제공 ▲캐스퍼 디 에센셜 0원 경품 이벤트 및 SSF샵 할인 쿠폰 지급 등 혜택이 포함됐다.

먼저 현대차는 SSF샵 회원에게 캐스퍼 할인 쿠폰 10만원을 증정하며, 할인 쿠폰을 적용 받아 차량을 출고한 고객에게 SSF샵 전용 포인트인 퍼플 코인 10만원과 함께 쿠폰팩을 추가로 지급한다.

할인 쿠폰은 SSF샵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 가능하고 이벤트 기간 내 캐스퍼 계약 시 사용할 수 있다.

또 현대차는 SSF샵 회원 대상 경품 행사를 진행해 1등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캐스퍼 디 에센셜 차량 1대를 증정하고 응모자 전원에게는 SSF샵 7%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캐스퍼 디 에센셜은 캐스퍼 출시 이후 1년 동안 고객들이 선호하는 사양들을 분석해 최적의 사양으로 구성한 스페셜 트림이다.

캐스퍼 디 에센셜은 탑승자와 운전자를 배려해 ▲폴오도 에어컨 ▲8인치 네비게이션 ▲루프랙 등 핵심 편의 및 안전사양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현대차·기아 미 전기차시장 점유율 1~5월 11.2%...역대 최고치 기록

5년간 테슬라와 격차 33%p 좁혀

올해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미국에서 판매된 현대차·기아의 친환경차 10대 중 4대는 전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1~5월 미국에서 판매된 전기차(승용) 43만7246대 가운데 현대차·기아 전기차는 11.2%에 해당하는 4만8838대로 집계됐다.

역대 1~5월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판매 통계 가운데 가장 많은 대수이자 가장 높은 점유율이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5년(1~5월 기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다.

2020년 3.2%(2344대), 2021년 3.4%(5974대), 2022년 10.6%(2만7388대) 등이었다. 작년의 경우 미국 전기차 시장의 팽창 속도를 현대차·기아가 따라가지 못해 점유율은 6.8%(2만9622대)로 하락했다.

하지만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현대차·기아는 전기차 판매량을 늘리며 점유율을 다시 두 자릿수로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전기차 시장 1위를 이어온 테슬라와 현대차·기아의 점유율 격차는 5년 새 약 33%포인트 줄었다.

연도별 1~5월 테슬라와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

기차 시장 점유율 격차는 지난 2020년 73.2%포인트, 2021년 65.4%포인트, 2022년 55.5%포인트, 작년 52.9%포인트, 올해 40.5%포인트로 감소했다.

현대차그룹 친환경차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전기차의 비중은 커지고 있다.

지난 1~5월 현대차·기아의 미국 내 친환경차 판매량(12만2562대) 중 전기차 비중은 40%에 육박했다.

2020년 17.2%에 불과했던 전기차 판매 비중은 2021년 21.6%, 2022년 37%로 꾸준히 상승하다 작년 27.6%로 소폭 하락한 뒤 올해 39.9%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현대차·기아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11.2%는 미국 친환경차 시장 점유율(10.6%)을 처음 넘어서는 수치이기도 하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약진하는 배경으로는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과 신차 출시 효과 등이 꼽힌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은 최근 콘퍼런스 콜에서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 계획이 상충하는 추세"라며 "앞으로 이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작년 말 출시된 기아 EV9은 올해 1~5월 7천766대 팔리며 현대차·기아 전기차의 미국 내 판매량 확대에 특목히 기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벤츠,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 스포츠카 헌정

LOL '전설의 전당' 첫 입성 축하

메르세데스-벤츠는 지난 6일 리그 오브 레전드(LOL) '전설의 전당' 첫 입성자인 '페이커' 이상혁을 위한 특별한 벤츠 차량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츠는 페이커 이상혁에게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특별한 방식으로 축하했다.

페이커는 지난 5월 23일 라이엇 게임즈의 공식 발표를 통해, LOL 플레이어들 기념하기 위해 신설된 '전설의 전당(Hall of Legends)'의 초대 헌액자로 선정됐다. LOL의 공식 파트너사인 벤츠는, 서울 잠정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페이커의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전당 2024' 입성을 기념해 특별한 예술 작품과 함께 맞춤 제작된 메르세데스-AMG SL 63 자동차 키를 전달했다.

유명 디자인 스튜디오와 협업한 이 작품은 페이

커가 고향인 서울을 배경으로 차량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리그 오브 레전드 고유의 아트 스타일로 표현했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는 전용 페인트, 인테리어 및 기타 옵션을 통한 개인형 맞춤주문제작 '마누팩투어(MANUFAKTUR)' 프로그램으로 페이커만을 위한 AMG SL 63 로드스터 차량을 제작해 전달할 예정이다. 차량 헤드레스트에는 페이커의 서명, 플로어 매트에는 '전설의 전당(Hall of Legends)' 레터링이 새겨진다.

크리스 그릴리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전략 글로벌 총괄은 "메르세데스-벤츠가 전설의 전당 파트너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페이커 맞춤형 자동차는 그의 명예의 전당 헌액을 축하하는 완벽한 차량으로, 이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한 메르세데스-벤츠의 감사의 의미까지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